

범죄자의 지능 및 정서인식력이 정신병질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홍 수 빈 이 수 정[†] 이 자 경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범죄자의 정신병질 경향성에 지능과 정서인식력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재소자 87명을 대상으로 PCL-R, ERT-R, K-WAIS-IV를 실시하고, ERT-R 하위척도, K-WAIS-IV하위점수와 PCL-R의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서인식력, 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RT-R 하위척도와 K-WAIS-IV 하위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PCL-R총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혼인·동거 경험, 수용시설복역전과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RT-R은 PCL-R의 하위척도 중 대인관계와 정서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WAIS-IV는 PCL-R의 하위척도 중 생활양식과 반사회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CL-R의 대인관계척도와 정서성척도가 높을수록 낮은 정서성을 보이며, 생활양식척도와 반사회성척도가 높을수록 낮은 지능과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신병질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정서인식력, 지능, 위험성평가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1941년 Cleckley의 저서 “The mask of sanity”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Hare(1991)에 의해 정립되고 널리 알려졌다. Hare(1991)에 의하면 정신병질이란 무감정적이고, 피상적이며 조작적인 대인관계 패턴과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성격 장애로, 이러한 정신병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을 정신병질자 혹은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한다(Hare, 1991). 흔히 정신병질을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병질과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들을 진단함에 있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아동기 품행장애의 여부와 반사회적 행동패턴의 유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반면, 정신병질은 반사회적 행동자체보다는 바탕이 되는 심리특질, 즉 기만성과 계획성의 부족 같은 사고과정과 얕은 감정과 공감부족 같은 정서 요인을 중요한 진단기준으로 고려한다(이수정, 김혜진, 2009). 대인관계상으로 정신병질자는 과장되고 이기적이고 교묘하며 지배적이고 강력하며 착취적이고 냉담하다. 정서적으로 그들은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감정을 드러내며, 사람들, 원칙, 목표 등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공감, 죄의식,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생활양식은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감각을 추구한다. 그들은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쉽게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과거에 이미 처벌된 적이 있었던 행동을 피하려 하지 않아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Hare, 1996; Vitale, Newmann, Bates, Dodge, & Pettit, 2005).

정신병질과 정서인식력 사이의 관계

정서와 정신병질에 대해 연구한 Hastings, Tangney와 Stuewig(2008)는 145명의 남자죄수들을 PCL-SV로 선별하고 facial affect recognition(얼굴 감정인식-행복, 슬픔, 두려움, 화, 부끄러움의 5가지 표정)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정신병질자는 전반적으로 얼굴인식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슬픈 얼굴과 행복한 얼굴에서도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Thierry, Claire와 Olivier(2010)는 PCL-R로 20명의 남성범죄자 정신병질자와 19명의 비정신병질자로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AS(토론토 감정표현불능 척도 Toronto Alexithymia Scale; Bagby, Parker & Taylor, 1994a, b)와 TEIQue(정서지능문항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 Petrides & Furnam, 2003)에서 정신병질자들은 TAS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신병질의 측면 가운데, 감정요소결핍(the deficient affective component)은 TAS총점수와 TEIQue총점과 가장 부적의 상관이 높았다. TEIQue에서 정신병질자들은 ‘감정인식’과 ‘감정조절’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AS총점과 TEIQue총점은 부적관계를 보였다($r = .61$). 이 결과들은 정신병질자들 사이에 감정인식결함에 대한 전통적인 가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TAS와 정신병질 경향성의 부적상관에 대하여, TAS가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임을 감안할 때, 병적인 거짓말을 하고 남을 잘 속이는 정신병질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처럼 이런 얼굴표정과 관련된 연구가 정신병질

과 정서에 대한 연구와의 관련성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정서 및 행위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인식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홍상욱, 정찬섭, 1999).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얼굴을 통해서 전달하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도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얼굴표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얼굴표정을 잘 지각하는 능력은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서 상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이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Flack, Cavallaro, Laird & Miller, 199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정신병질적 점수가 높을 경우 정서인식력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서인식력과 정신병질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병질과 지능 사이의 연관성

한편, 범죄의 원인요인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지능요인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에 점점 사라졌다가 1980년대에 지능과 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낮은 지능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요한 촉매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Wilson & Herrnstein, 1985). 덴마크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능의 관련성 연구에서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폭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ffitt, 1981). 이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대화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폭력과 같은 행동이나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밝혔다. Einer, Yeudall, Donald와 Bo-Lassen(1983)은 캐나다에서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어느 정도 IQ가 떨어지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웨슬러 성인지능측정법(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지능지수를 조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정상인 청소년들에 비해 약 20점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Einer, Yeudall, Donald & Bo-Lassen, 1983). 정상적인 사람의 지능을 100으로 보았을 때, 범죄자들의 지능지수는 92 전후인 것으로 이들의 연구에 나와 있다. 또한 상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더 낮은 IQ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상곤, 2004). Hirschi와 Hindelang(1977)은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에 소외되거나 뒤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교육에서 뒤쳐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낮은 수입의 직업과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은 교육상의 장애와 성취도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낮은 지능은 어릴 때 행동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에 지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해서 쉽게 좌절하고 폭발하게 되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높여준다(장동원, 1990). 그렇지만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범죄성향을 보인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지능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McGloin과

Pratt(2003)는 낮은 지능수준의 사람들에게서 조발비행에 의한 장기적인 범죄경력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Kandel, Mednick, Kirkegaard-Sorensen, Hutchings, Knop, Rosenberg와 Schulsinger(1988)에 의해 진행된 덴마크의 고위험군 여성에 대한 추적연구는 높은 IQ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밝혔다(Kandel, Mednick, Kirkegaard-Sorensen, Hutchings, Knop, Rosenberg & Schulsinger, 1988).

하지만 범죄경력이 아닌 정신병질과 지능과의 연관성은 연구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Salekin, Neumann, Leistico와 Zalot(2004)은 지능과 정신병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122명의 구금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PCL-YV와 K-BIT(Kaufman's Brief Intelligence Test: Kaufman & Kaufman, 1990), STAT(Sternberg's Triarchic Abilities Test: Sternberg, 1993)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정신병질적 측면과 지능은 특별하고 중요한 면에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정신병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피상적이고 기만적인 대인관계 양식과 K-BIT로 측정된 언어적인 지적기능, 창의성, 실용성, 분석적 사고를 반영한 STAT로 측정된 지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Salekin, Neumann, Leistico & Zalot, 2004). Spironelli, Segre, Stegagno와 Angrilli(2014)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범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정신병질 점수가 높을수록 지능의 언어적인 요소는 우수하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고위험군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22세부터 77세까지 평균 39세인 정신이상(insane)의 여성들 56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PCL-R을 통해 정신병질을 측정하고 유동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RPM(Raven's Progressive

Matrices)을 사용했다. 결과 RPM IQ와 PCL-R 총 점수 및 하위척도 점수들은 각각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일반적인 기대대로 PCL-R 점수가 높을수록 IQ점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Spironelli, Segre, Stegagno & Angrilli, 201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신병질과 지능의 하위요소들 간의 관련성은 지능 총점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예상하게 만드는데,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의문을 가지고 지능과 정신병질의 하위요소 간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 법

연구절차

전국에 있는 연구 협조의뢰에 동의한 교정기관들을 통해 1차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별한 후, 선별된 인원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감되어 있는 시설에 방문하여 검사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107명 가운데 중도포기자와 일부 데이터 분실된 20건을 제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들은 총 87명이었다. 이들의 수감시설은 광주 교도소에 17명, 김천소년 교도소 1명, 대구구치소 1명, 부산구치소 2명, 서울남부구치소 2명, 수원구치소 53명, 순천교도소 2명, 안양교도소 1명, 원주교도소 1명, 인천구치소 2명, 진주교도소 2명, 청주교도소 2명, 통영구치소 1명으로 국내에 있는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수용자 86명, 여성수용자 1명이며, 만 19세부터 58세까지 성인이다.

평가자들은 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PCL-R과 K-WAIS-IV, ERT-R의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연구대상자마다 2인 1조로 구성되어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구조화된 심층면담과 수사서류검토를 바탕으로 PCL-R을 평정하였으며, 검사시간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체 데이터 수집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만 19세부터 58세까지 남성 86명(98.9%)과 여성 1명(1.1%)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10대는 2명(2.3%), 20대는 22명(25.3%), 30대는 34명(39.1%), 40대는 18명(20.7%), 50대는 11명(12.6%)로 확인되었다. 정규교육을 받은 교육연수를 살펴보면 정규교육 과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5명(5.7%),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6년이 16명(18.4%), 중학교에 해당하는 7~9년이 17명(19.5%),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0~12년이 38명(43.7%), 대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12년 이상이 11명(12.6%)이었다. 혼인이나 동거의 경험을 통해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명(32.2%)이었으며, 혼인·동거경험이 없는 사람은 59명(67.8%)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대상자들의 범행관련 특성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조발비행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에 최초 입건된 연령이 25세 이상 29명(33.3%), 19세 이상 25세 미만이 12명(13.8%), 13세 이상 19세 미만이 41명(47.1%), 13세 미만이 4명(4.6%)이었으며, 비행경험이 없는 사

람은 1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건에 대한 범죄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폭력이 49명(5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절도 16명(18.4%), 살인 10명(11.5%), 폭력 9명(10.3%), 살인미수 3명(3.4%)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 복역전과와 관련해서는 2년 미만이 53명(60.9%), 2년 이상 5년 미만이 19명(21.8%),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명(10.3%), 10년 이상이 6명(6.9%)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Psychopathy Check List-Revised; PCL-R

PCL-R은 반구조화된 인터뷰기법을 적용하여 정신병질의 핵심 특성인 20개 항목들을 평가한다(Hare, 1991). PCL-R은 대인관계/정서성을 평가하는 요인1과 사회적 일탈성을 측정하는 요인2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1은 대인관계 단면, 정서성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2는 생활양식, 반사회성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를 주게 되어 있으며, 평가자는 20가지의 기준요건에 대해 평가를 할 때 피검자와의 면담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국내에서는 조은경과 이수정(2008)이 변안한 정신병질 진단도구인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한국어판이 형사 사법 장면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거하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집단 구분을 위하여 한국판 PCL-R을 사용하였다. PCL-R의 진단 경계점에 있어 Hare(1991)는 30점 이상을 정신병질로 진단하였으나 Hare의 진단 경계점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북미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87)

	구분	N	%
성별	남	86	98.9
	여	1	1.1
	계	87	100
연령	10대	2	2.3
	20대	22	25.3
	30대	34	39.1
	40대	18	20.7
	50대	11	12.6
	계	87	100
교육연수	0년	5	5.7
	1~6년	16	18.4
	7~9년	17	19.5
	10~12년	38	43.7
	12년 이상	11	12.6
	계	87	100
혼인·동거경험	경험있음	28	32.2
	경험없음	59	67.8
	계	87	100
조발비행	25세 이상	29	33.3
	19-25세미만	12	13.8
	13-19세미만	41	47.1
	13세 미만	4	4.6
	비행경험없음	1	1.1
	계	87	100
범죄명	성폭력	49	56.3
	살인	10	11.5
	절도	16	18.4
	폭력	9	10.3
	살인미수	3	3.4
	계	87	100
수용시설복역전과	2년미만	53	60.9
	2년-5년미만	19	21.8
	5년-10년미만	9	10.3
	10년이상	6	6.9
	계	87	100

25점을 정신병질 진단 경계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차를 발견할 수 있다(Cooke & Michie, 1999). 2008년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연구에서 PCL-R 점수분포 상 준거집단에 대한 변별지표인 AUC가 .69, 민감도가 .63, 특이도가 .76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위험성이 정신병질을 변별하는 기준점을 25점으로 확인된 바 있다(조은경, 이수정, 2008).

Emotional Recognition Test; ERT-R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인식검사인 ERT-R은 자극의 정서적 내용을 피검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문제해결과제를 통하여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피검자들의 정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 ERT-R은, 이수정(2001)이 응답자의 반응스타일이 반영되는 자기보고식 검사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수행검사인 ERT(Emotional Recognition Test)의 개정판으로 각 문항 평균변별도 .33, 평균난이도 .74를 가짐으로서 정상지능의 피험자에게 비교적 쉬운 검사로 인식될 수 있다(이수정, 김혜진, 2009). 또한 ERT검사는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어적인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자극보다는 비언어적인 사진자극이나 그림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각 문항에 포함된 정서적인 단서를 제대로 파악하면 언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객관적 심리검사도구이다. ERT 검사의 최초 타당도 연구(이수정, 황혜정, 2003)에서는 이 수행검사로 측정된 정서인식력이 동일 연령대 내에서 지능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RT-R의 하위척도에는 쉬운 수준의 무표정한 얼굴들로부터 감정이 있는 얼굴들을 구분해 내는 정서인식 18

문항, 중간 수준이며 6개의 개별정서별로 수집된 사진들 가운데 서로 감정가가 다른 얼굴을 찾아내는 정서변별 12문항, 최고난이도 문항인 상황의 정서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이해 24문항이 있다.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K-WAIS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인용 지능검사 도구로서 1963년 우리나라에 맞게 개정, 표준화하고, 1992년에는 이를 다시 재표준화하여 K-WAIS(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최정운, 200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웨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IV)은 16세 0개월부터 69세 11개월까지의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능력을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인용 지능검사 3판(WAIS-III)의 개정판이다. 소검사들과 조합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합점수는 일반적인 지적능력(전체 지능지수: Full Scale IQ)을 나타내는 점수와 특정 인지영역에서 지적기능을 나타내주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WAIS-IV의 검사는 3판과는 다르게 4개의 지수척도(Index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이해(VCI), 지각추론(PRI), 작업기억(WMI), 처리속도(PSI)에 해당하는 소검사는 핵심소검사와 보충소검사로 사용되어 있다. 언어이해는 언어적 이해능력, 언어적 기술과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언어적 정보처리능력, 어휘를 사용한 사고능력, 결정적 지식, 심적수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유연성, 자기감찰능력을 측정한다. 지각추론은 지각적 추론능력,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사고능력 및 시각적 이미지를 유창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인지적 유연성, 상대적인 인지적속도, 제한된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인식된 자료를 해석 또는 조직화하는 능력, 비언어적 능력,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과 관련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유동적 추론능력, 자기점검 능력을 측정한다. 작업기억은 작업기억, 청각적단기기억, 주의지속능력, 수리능력, 부호화능력, 청각적 처리기술, 심적 수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유연성, 자기점검 능력을 측정한다. K-WAIS-IV의 기술 및 해석요강(2012)에서 각 지수척도의 신뢰도는 평균은 .91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체척도(FSIQ)의 신뢰도 또한 .97로 우수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모든 소검사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충소검사를 제외한 핵심소검사 10가지(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만을 사용하여 지능 총점이외에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주제 검증을 위하여 ERT-R 하위점수와 K-WAIS-IV 하위척도 점수가 PCL-R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 절차를 거쳤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RT-R 정서인식의 평균은 15.98(SD=15.092)로 나왔으며, 정서변별의 평균은 13.95(SD=15.405) 이었다. 하위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맥락이해의 평균은 20.97(SD=12.513)로 나왔다. ERT-R의 총점은 51.30(SD=39.677)으로 나왔으며 이수정(2008)에 따르면 31-55점에 해당하는 점수의 경우 평균 수준의 정서인식능력을 지녔으며 타인의 정서적 단서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K-WAIS-IV의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언어이해는 평균 88.70(SD=17.073)이었으며, 하위변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지각추론은 평균 92.36(SD=18.432)로 나왔다. 작업기억의 평균은 89.11(SD=18.856)이었으며, 처리속도의 경우 평균 79.82(SD=18.419)로 가장 낮았다. K-WAIS-IV의 총점은 평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7.31(SD=15.116)로 나왔는데 이는 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2012)의 해석요강에 따르면 80-89점의 범위인 평균 하에 해당한다. PCL-R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생활양식이 5.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총점 평균은 19.07(SD=6.218)로 나왔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요 변수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N	M	SD
독립 변수	ERT-R 정서인식	87	15.98	15.092
	ERT-R 정서변별	87	13.95	15.405
	ERT-R 맥락이해	87	20.97	12.513
	ERT-R 총점	87	51.30	39.677
	K-WAIS-IV 언어이해	87	88.70	17.073
	K-WAIS-IV 지각추론	87	92.36	18.432
	K-WAIS-IV 작업기억	87	89.11	18.856
	K-WAIS-IV 처리속도	87	79.82	18.419
	K-WAIS-IV 총점	87	87.31	15.116
종속 변수	PCL-R 대인관계	87	3.43	2.055
	PCL-R 정서성	87	4.82	2.077
	PCL-R 생활양식	87	5.74	2.254
	PCL-R 반사회성	87	4.02	2.401
	PCL-R 총점	87	19.07	6.218

상관관계분석 결과, ERT-R 정서인식은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변별의 경우 대인관계와 정서성과, 맥락이해는 정서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ERT-R 총점은 대인관계와 정서성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K-WAIS-IV언어이해와 작업기억은 각각 생활양식, 반사회성, PCL-R총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지각추론척도의 경우 반사회성 척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처리속도척도에서 대인관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생활양식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K-WAIS-IV 총점은 생활양식과 반사회성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ERT-R의 총점 및 하위척도들은 PCL-R의 대인관계, 정서성 척도와 부적관계가 높으며

K-WAIS-IV의 총점 및 처리속도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척도들은 PCL-R의 생활양식, 반사회성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ERT-R 하위척도가 PCL-R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ERT-R의 하위척도인 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가 종속변수인 PCL-R 하위척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정서인식척도가 유의수준 .029에서 F값이 4.957의 수치를 보여 유의미하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가 .055로 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R^2=.055$). 또한 Durbin-Watson은 1.803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N=87)

변인	ERT-R				K-WAIS-IV				PCL-R					
	정서 인식	정서 변별	맥락 이해	총점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총점	대인 관계	정서성	생활 양식	반사회성	총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823**	1												
3	.791**	.774**	1											
4	.938**	.936**	.900**	1										
5	.346**	.156	.320**	.277**	1									
6	.193	.108	.281**	.206	.655**	1								
7	.293**	.165	.387**	.295**	.721**	.757**	1							
8	.029	-.158	.075	-.017	.419**	.541**	.482**	1						
9	.266*	.088	.319**	.234*	.827**	.878**	.887**	.725**	1					
10	-.235*	-.246*	-.200	-.235*	.124	.132	.019	.282**	.163	1				
11	-.170	-.270*	-.240*	-.229*	-.152	.017	-.059	.121	-.033	.310**	1			
12	-.023	.131	-.046	.047	-.336**	-.208	-.337**	-.233*	-.330**	.017	.312**	1		
13	.097	.208	.072	.153	-.313**	-.313**	-.279**	-.019	-.261*	.158	.099	.442**	1	
14	-.113	-.048	-.143	-.084	-.270*	-.164	-.254*	.056	-.184	.544**	.624**	.682**	.701**	1

* $p < .05$, ** $p < .01$.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수준 .022에서 F값 5.484을 보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변별척도는 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R^2=.061$), Durbin-Watson은 1.92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성 척도에서는 정서변별이 유의수준 .012에 F값 6.659를 보여 유의하였으며, 7.3%의 설명력을 보였다($R^2=.073$). Durbin-Watson은 1.87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맥락이해척도의 유의수준이 .025에 F값 5.218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이 5.8%였다

($R^2=.058$). 또한 Durbin-Watson은 1.85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양식과 반사회성 척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인식척도와 대인관계척도의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beta=-.235$), 정서변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beta=-.246$). 정서성 척도 점수와 정서변별척도($\beta=-.270$), 맥락이해척도($\beta=-.240$)가 각각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력이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대인관계 측면과 정서성

표 4. PCL-R 하위척도에 대한 ERT-R 하위척도의 회귀분석 결과(N=87)

변인	대인관계				정서정				생활양식				반사회성							
	B	SE	β	t	F	B	SE	β	t	F	B	SE	β	t	F	B	SE	β	t	F
정서인식	-0.32	.014	-.225	-2.226	4.957*	-0.23	.015	-.170	-1.587	2.519	-0.03	.016	-.023	-.216	.047	.015	.017	.097	.898	.806
정서변별	-0.33	.014	-.246	-2.342	5.484*	-0.36	.014	-.270	-2.581	6.659*	.019	.016	.131	1.214	1.475	.032	.017	.208	1.962	3.848
백락이해	-0.33	.017	-.200	-1.879	3.532	-0.40	.017	-.240	.025	5.218*	-0.08	.020	-.046	-.422	.178	.014	.021	.072	.666	.443

* $p < .05$, ** $p < .01$, *** $p < .001$.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WAIS-IV 하위척도가 PCL-R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K-WAIS-IV의 하위척도인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가 PCL-R 하위척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언어이해척도는 생활양식변수에 유의수준 .001에서 F값 10.815의 수치를 보여 유의미하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가 .113로 1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R^2=.113$). 또한 Durbin-Watson은 1.93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이해와 반사회성척도도 .0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F값 9.227을 보였다. 9.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R^2=.098$) Durbin-Watson은 2.40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각추론 변수는 반사회성척도와 .003수준에 F값 9.202로 유의미하였다. 9.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R^2=.098$) Durbin-Watson은 2.460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기억변수는 생활양식척도와 반사회성 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는데 생활양식척도에는 .001수준에 F값 10.862로 유의미하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 .113으로 1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사회성척도에는 .009수준 F값 7.200의 수치를 보여

유의미하였으며, 7.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R^2=.078$), Durbin-Watson은 1.877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리속도 변수는 대인관계척도와 생활양식척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 척도와는 .008수준에 F값 7.339를 보였으며 7.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2=.079$). Durbin-Watson 1.98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수준 .030으로 F값 4.896의 수치를 보여 생활양식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결정계수 .233으로 2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R^2=.223$). Durbin-Watson은 2.168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척도는 처리속도변인과 유일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beta=.282$), 이는 처리속도 지수가 K-WAIS-IV 내에서 다른 지수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고 독립적인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Nicholas, David & John, 2010; 최원정, 2015). 언어이해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양식척도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beta=-.336$), 작업기억($\beta=-.337$)과 처리속도($\beta=-.223$) 생활양식척도와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사회성척도가 높을수록 부적인 상관을 보인 언어이해($\beta=-.313$), 지각추론($\beta=-.313$). 작업기억($\beta=-.279$)의 점수는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능이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좀 더 세부적인 결과에서 지능이 낮을 경우 대인관계, 생활양식과 반사회성 측면에서 정신병질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5. PCL-R 하위척도에 대한 K-WAIS-IV 하위척도의 회귀분석 결과(N=87)

변인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B	SE	β	t	F	B	SE	β	t	F	B	SE	β	t	F	B	SE	β	t	F
언어이해	.015	.013	.124	1.149	1.319	-.018	.013	-.152	-1.415	2.003	-.044	.013	-.336	-3.289	10.815**	-.044	.014	-.313	-3.038	9.227**
지각추론	.015	.012	.132	1.224	1.499	.002	.012	.017	.153	.023	-.025	.013	-.208	-1.962	3.851	-.041	.013	-.313	-3.033	9.202**
작업기억	.002	.012	.019	.176	.031	-.006	.012	-.059	-.543	.295	-.040	.012	-.337	-3.296	10.862**	-.036	.013	-.279	-2.683	7.200**
처리속도	.031	.012	.282	2.709	7.339**	.014	.012	.121	1.121	1.256	-.029	.013	-.233	-2.213	4.896*	-.002	.014	-.019	-.171	.029

주. * $p < .05$, ** $p < .01$, *** $p < .001$.

PCL-R총점에 ERT-R, K-WAIS-IV가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표 6은 연령, 혼인·동거 경험, 수용시설복역전과를 변수로 투입한 후에 ERT-R과 K-WAIS-IV를 독립변수로 하고 PCL-R 총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수용시설복역전과를 회귀모델에 투입한 결과, 유의수준 .003에 F값 4.897로 수용시설복역전과($P=.024$)와 혼인·동거 경험($P=.006$)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시설복역전과가 높을수록($\beta=.235$), 혼인·동거경험이 없을수록($\beta=-.309$)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odel I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였다($Adj.R^2=.120$). Model II에서는 Model I에 투입된 변수에 추가적으로 ERT-R 총점과 K-WAIS-IV 총점을 투입하였다. Model II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F값 3.3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9$). 수용시설복역전과($P=.033$, $\beta=.225$)와 혼인·동거경험($P=.009$, $\beta=-.295$)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Durbin-Watson 2.29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수감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서인식력과 지능이 정신병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PCL-R로 측정한 범죄자들의 정신병질 하위척도와 ERT-R의 하위척도, K-WAIS-IV 하위척도 점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병질자들의 정서인식과 정서처리에 초점을 맞춘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Flack, Cavallaro, Laird & Miller, 1997; Hastings, Tangney & Stuewig, 2008). 또한 정신병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낮은 지능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Hirschi & Hindelang, 1977; Moffitt, 1981; Einer, Yeudall, Donald & Bo-Lassen, 1983; McGloin & Pratt, 2003; Salekin, Neumann, Leistico & Zalot, 2004), Spironelli, Segre, Stegagno와 Angrilli(2014)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범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정신병질 점수가 높을수록 지능의 언어적인 요소는 우수하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표 6. PCL-R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N=87)

분석단계	B	SE	β	t	R^2	Adj. R^2	ΔR^2	F
연령	.005	.069	.008	.067				
수용시설복역전과	.360	.166	.225	2.165*			.150	4.897**
혼인·동거경험	-3.903	1.458	-.295	-2.676**	.169	.118		
ERT-R총점	-.011	.017	-.070	-.653			.019	3.303**
K-WAIS-IV총점	-.043	.044	-.105	-.983				

주. * $p<.05$, ** $p<.01$, *** $p<.00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를 통해 정신병질과 지능의 하위요소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의문을 가지고 지능 하위요인과 정신병질의 하위요소 간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또한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능과 정서인식력에 관해 진행된 연구는 있었으나, 단순히 전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 세부적인 항목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는 정서인식력과 정신병질 하위측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RT-R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 이해와 K-WAIS-IV의 하위점수인 언어이해(VCI), 지각추론(PRI), 작업기억(WMI), 처리속도(PSI)를 각각 PCL-R의 하위척도인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ERT-R의 하위척도와 PCL-R 하위척도 가운데 정서인식척도와 대인관계척도의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beta=-.235$), 정서변별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beta=-.246$). 정서변별척도가 높을수록 정서성 척도의 점수와($\beta=-.270$), 맥락이해척도 점수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beta=-.240$). 이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Flack, Cavallaro, Laird & Miller, 1997; Hastings, Tangney & Stuewig, 2008). 또한 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WAIS-IV 하위척도와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다음 회귀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척도는 처리속도변인과 유일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beta=.282$), 이는 처리속도 지수가 K-WAIS-IV 내에서 다른 지수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고 독립적인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

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Nicholas, David & John, 2010; 최원정, 2015). 언어이해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양식척도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beta=-.336$), 작업기억($\beta=-.337$)과 처리속도($\beta=-.223$) 생활양식척도와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사회성척도가 높을수록 부적의 상관을 보인 언어이해($\beta=-.313$), 지각추론($\beta=-.313$), 작업기억($\beta=-.279$)의 점수는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K-WAIS-IV는 생활양식, 반사회성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능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Hirschi & Hindelang, 1977; Moffitt, 1981; Einer, Yeudall, Donald & Bo-Lassen, 1983; McGloin & Pratt, 2003; Salekin, Neumann, Leistico & Zalot, 2004). 즉, 정서인식력이 낮을수록 PCL-R의 대인관계척도와 정서성척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지능지수가 낮은 경우 PCL-R의 생활양식과 반사회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적인 성향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통해, 정신병질로의 발전을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PCL-R 총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혼인·동거 경험, 수용시설복역전과를 변수로 투입한 후에 ERT-R과 K-WAIS-IV를 독립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혼인·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PCL-R 총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수용시설복역전과가 많을수록 PCL-R총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수가 많을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는 혼인·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일수록 정신병질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표본 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대상자는 87명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고급분석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고 검사를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검사 및 평가진행 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일부 검사에만 참여한 연구대상자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표본 모집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표본 수가 검증력과 효과의 크기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고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성비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정신병질이 남성에게서만 나타나는 장애가 아니므로 여성 정신병질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여성 정신병질자 사례수집에 한계점을 보완한 후,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정신병질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신병질로의 발전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범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신병질의 하위 요인과 이러한 정신병질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은 장차 범행동기와 재범가능성, 위험성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치료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수정 (2001). 문제해결과제를 이용한 정서인식력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5(3), 65-86.
- 이수정, 김혜진 (2009). 사이코패스의 전두엽 집행기능 및 정서인식력 손상기전.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3(3), 107-121.
- 이수정, 황혜정 (2003). CBT 정서능력검사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41-67.
- 조은경, 이수정 역 (2008). Hare 저, PCL-R 2 판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 최원정 (2015). K-WAIS-IV와 K-WAIS 지능지수의 동질성 검증.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운 (2003). 심리검사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주).
- 홍상욱, 정찬섭 (1999). 표정이 얼굴 재인에 미치는 여행.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1(2), 227-241
- 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항 (2012). K-WAIS-IV 기술 및 해석요강. 대구: 한국심리주식회사.
- Bagby, R. M, Parker, J. D, Taylor, G. J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23-32.
- Cleckley, H. (1941).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 Mosby.
- C. Spironellia, D. Segrèa, L. Stegagnoa & A. Angrillia (2014). Intelligence and psychopathy: a correlational study on insane female offenders. *Psychological Medicine*, 44(1), 111-116.

- Einer Boberg, Lorne T. Yeudall, Donald Schopflocher, Peter Bo-Lassen (1983). The effect of an intensive behavioral program on the distribution of EEG alpha power in stutterers during the processing of verbal and visuospatial information. *I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8(3), 245-263.
- Flack, W. F., Cavallaro, L. A., Laird, J. d., & Miller, D. R. (1997). Accurate encoding and decod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in schizophrenia. *Psychiatry*, 60, 197-200.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stings, M., Tangney, J. P., & Stuewig, J. (2008). Psychopathy and identifica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474-1483.
- Kandel, E., Mednick, S. A., Kirkegaard-Sorensen, L., Hutchings, B., Knop, J., Rosenberg, R., & Schulsinger, F. (1988). IQ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bjects at high risk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2), 224-226.
- McGloin, J & Pratt, T. (2003). Cognitive Ability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Inner-City Youth: A Life-Course Analysis of Main, Mediating, and Interaction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3), 253-271.
- Moffitt, Robert A. (1981). The negative income tax: would it discourage work?. *Monthly Labor Review*, 104(4), 23-27
- Nicholas, B., David, M. H., & John, H. K. (2010). Independent Examination of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Fourth Edition (WAIS-IV): What Does the WAIS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22(1), 121-130.
- Petrides, K. V., & Furnham, A. (2003).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ural validation in two studies of emotion recognition and reactivity to mood induc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39-57.
- Randall T. Salekin, Craig S. Neumann, Anne-Marie R. Leistico, Alecia A. Zalot. (2004). Psychopathy in Youth and Intelligence: An Investigation of Cleckley's Hypothe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3(4), 731-742.
- Thierry H. Pham, Claire Ducro & Olivier Luminet (2010). Psychopathy, Alexithymia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a forensic hos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9(1), 24-32.
- Travis Hirschi & Michael Hindelang. (1977).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A Revisionist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471-586.
- Vitale, J. E., Newman, J. P., Bates, J. E., Goodnight, J., Dodge, K. A., & Pettit, G. S. (2005). Defici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omalous selective atten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ow-Anxie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61-470.
-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85).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andSchuster.

1 차원고접수 : 2015. 06. 08.

심사통과접수 : 2015. 07. 06.

최종원고접수 : 2015. 07. 20.

The Effect of Intelligence and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on Criminal's Psychopathic tendency

Su Bin Hong

Soo Jung Lee

Ja Kyung Lee

Kyongg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emotional recognition capabilities and intelligence on factors of psychopathic tendencies measured by Psychopathy Checklist (PCL-R). Total of 87 participants involved in this study were Korean inmates in prison. Variables of the effect on intelligence were measured with the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K-WAIS-IV) and the recognition task of facial expressions was performed with 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ERT-R), respectively.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bscales of ERT-R and subscales of psychopathic tendencies, Interpersonal, Affective and subscales of K-WAIS-IV and subscales of psychopathic tendencies, Lifestyle and Antisocial. As a resul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path,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Intelligence, Risk assessment*